opusdei.org

단장주교의 7월 사목 서간

교회에 대한 교리를 다룬 에체 바리아 주교님의 사목서간이 다.

2013-7-4

나의 영적 자녀들이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이틀 전에 우리는 신앙의 기둥이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로마에서 피를 흘

리신 베드로와 바오로 사도 대축일을 지냈습니다. 성 베드로가 교황으로서 그의 자리를 정립하고 순교로서 지상 의 생을 마감한 곳이 바로 그 도시였 습니다. 그리하여 로마 교회는 로마 와 세계의 모든 교회들의 어머니이자 머리가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이러한 계획에 감사합시다. 이로써 그리스도 인들은 계시된 교리 안에 확고하게 머무를 수 있게 되었고 일치의 가시 적 보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날마 다 우리 자신을 죽임으로써 우리의 삶을 내어주는 법을 배우도록 합시 다.

하느님께서는 전 구원 역사에 걸쳐 교회의 기반을 마련하셨습니다. 처음 에는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 성으로 삼으심으로써, 그러고 나서는 시간이 찼을 때에 당신의 사랑하는 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분 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고 기적을 행하셨으며 사도들을 부르시어 그 12 명이 구원 사명을 계속 이어 나가도 록 파견하셨습니다. "교회는 우리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 주심으로써 태어났다. 이 전적인 헌신은 특히 성체성사를 세움에서 예비되고 십자가 위에서 실현되었다." [1] 그리고 "성부께서 성자께 맡기신 일이 이루어지자(요한 17:4 참조) 성령께서는 오순절 날에 보내지시어 계속적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게 되었다." [2] 우리의 아버지께서원했던 바와 같이 이 두 신비에 대해경외심을 갖고 큰 믿음을 가지도록하늘에 청합시다.

교회는 온전히 육화되신 말씀에 의존합니다. 교회는 시간의 끝까지 세상에서 그 말씀을 현존하게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령에 의해 인도됩니다. 성령께서는 당신의 성전으로서교회의 품 안에 살아계십니다. 교회와 복되신 삼위일체의 이 깊은 유대에 경외심을 가지고 감사합시다. 교회는 그리고 우리는 하느님의 거룩한백성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체이

고, 보호자 성령의 거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한 신앙을 고백한 뒤에 교회의 신비를 선포하는 것은 너무나는리적입니다. 우리는 세례성사를 통해 교회의 일부가 되고, 교회 안에서구원의 보편적 성사로서 우리의 성화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 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3] 이 신앙고백은 교회를 내적으로 정의 하는 동시에 그것을 외적으로 표명하 는 네 요소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는 가톨릭 교리의 특유한 징표입니다. "이는 교회의 본질적 속성으로 그리 스도께서 뜻하신 바, 그 본성으로부 터 나오는 것입니다. 본질적이면서도 또한 표시이자 징표로서 교회를 다른 어떤 인간적인 모임과도 구별되게 합 니다. 다른 집단에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이 언명될 수 있겠지만 말입니 다." [4]

"교회의 초자연적인 성격에 대한 우 리의 신앙을 강화합시다. 필요하다면, 소리 높여 이를 선포합시다. 이 핵심 적 진리를 잊어버린 사람들이... 많 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본 뜬 무언가를 주장합니다. 허나 그것은 거룩하지도 하나이지도 않습니다. 또 한 사도로부터 이어오지도 않습니다.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았 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대체물은 보 편적이지도 않습니다. 단지 인간적 변덕에 불과한 확증되지 않은 비규칙 성으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5]

언제나 그렇듯이, 성 호세마리아의이 강하고도 분명한 말씀은 매우 시의적절합니다. 교황 프란치스코께서최근에 안타까워하신 바와 같이 "오늘날 아직도 몇몇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아니다.' '하느님은 믿지만 신부들은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모셔오

고 우리를 하느님께 데려다 주는 것 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느님 자녀들로 이루어진 커다란 가족입니 다. 물론 교회는 인간적인 측면도 있 습니다.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 목자 와 신도들에게는 부족함과 불완전함, 그리고 죄가 있습니다. . . 하지만 아 름다운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언제나 용서하시는 하느님의 자비 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6] 그리 고 하느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당신 의 용서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교회는 구원의 말씀과 우리를 거룩하 게 하는 성사를 보관하고 있는 곳입 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신앙과 행위규범, 기도, 형제애를 찾 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이미 세상을 떠나 연옥—정화 교회—에 있 는 형제들 그리고 삼중으로 거룩하신 하느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사랑 안에 있는 복된 형제들—승리 교회—과 모 두 일치를 이룰 수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 가운데에 있는 동시에 역사를 초월합니다. 교회는 성모님의 보호 아래 태어났고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계속해서 성모님을 어머니로서 찬미 합니다." [7]

성 호세마리아는 나날이 교회를 너무 나도 사랑한 나머지 우리에게도 똑같 이 행동하라고 하였습니다. 오푸스데 이를 세우고 나서 그는 분명하게 보 았습니다. 하느님께 모든 영광을 드 리기 위해, 그리스도를 모든 인간 행 위의 정점에 두기 위해, 그 길은 다음 과 같은 화살기도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모두 베드로와 함께 예수께로 마리아를 통하여!" 모두 하 나되어 우리는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 님께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자인 로마 교황의 지향과 바람에 일치하면서. 『길』에서 성 호세마리아 는 모든 가톨릭 신자에게 다음과 같 은 말을 전합니다. "Et unam, sanctam, catholicam et apostolicam Ecclesiam! 나는 여러분이 잠시 기도

문을 외우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 니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8]

교회는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일치에 의해 일치된 사람들" [9] 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치는 신앙, 경배—특히 성체성 사—, 교계적 친교라는 삼중의 끈으 로 이루어집니다. 동시에 교회는 보 편적이어서 모든 민족, 인종, 문화에 열려 있습니다. 전례, 신학적 영적 전 통, 규율의 풍성한 다양함은 그러한 일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교회 조직 밖에도 본질 적으로는 교회에 속하는 진리와 성화 의 많은 요소들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인류의 빛』, 8항 참조)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마음 속에 이러한 일치를 사랑하도록 북돋는 성령의 작용을 믿 는" [10] 한편, 우리는 구원이 교회를 통하여 인간에게 전해진다는 것을 확 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구원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구원의 유일한 중보자이며 길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몸인 교회 안에 스스로를 현존케 하시기 때문입니다(『인류의 빛』, 14항 참조). 그러나 하느님의 구원 계획은 모든사람을 아우릅니다." [11]

여러분은 가톨릭 신앙이 얼마나 아름 다운지 참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버 지 성인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신앙 은 인간의 마음이 바라는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줍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 을 받고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 시는" [12] 하느님의 거룩한 뜻을 우 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교회의 신도들은 구원의 수단을 갖게 됩니다. 또한 결과적으로 그리 스도와 그분의 사랑을 모든 이에게 전파하고자 하는 사도적 열정은 그리 스도인의 소명의 본질적인 부분입니 다. 어떤 것도 이 책무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얼마나 간절 히 나는 전 인류를 위하여 이를 청하 고 있는가?

"자신의 잘못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 과 그의 교회를 알지 못하지만 그럼 에도 참된 마음으로 하느님을 찾고 은총에 힘 입어 그들의 양심이 명령 하는 바에 따라 하느님의 뜻을 실천 하려 한 사람들 역시 영원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13] 는 것은 분명합니 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복음화를 위해 우리의 협력을 원하십니다. 각 자가 처한 환경에서 날마다 이 구원 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구원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 다. 성 호세마리아가 말했듯이 "양심 은 죄로 인해 망가지고 굳어져 하느 님의 구원 역사에 저항할 수 있기 때 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교리와 신앙의 진리, 그리스도교적 도덕 규 범을 전파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입니 다. 이는 또한 우리가 성사를 필요로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모든 성사는 은총의 도구적 원천이자 인간의 타락한 본성으로부터 오는 약점들에 대한 치료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제정된 것입니다." [14]

"그리하여 교회는 기도하고 또 마찬 가지로 노력한다. 하느님의 백성, 주 님의 신비체, 성령의 성전 안으로 온 세상의 충만함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만물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 에서 모든 명예와 영광이 우주의 아 버지이신 창조주께 바쳐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15]

교회를 튼튼히 세울 필요가 시급한 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기름때 처럼 많은 나라들로 펴져나가고 있는 상대주의와 무관심, 심지어 하느님에 대한 거부와 맞닥뜨려서 낙담하거나 비관주의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 다. 신앙을 중히 여기는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노력을 배가하여 영혼들을 하느님께로, 교회로 인도하여야 합니

다. 너무 큰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 시오.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됩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 히 하느님께로 향하도록 하십시오. 성령께서는 항상 마음 속에서 작동하 십니다. 각자에게, 아마도 가장 기대 하지 않은 순간에, 영원과 초자연적 삶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을 불러일으 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는, 성령의 움직 임에 응답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교 회, 즉 하느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성부의 위대한 사랑의 계획에 따라 이 인류 안에서 하느님의 누룩이 되 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너무도 자주 길을 잃고 헤매는 이 세상에 하 느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가져오는 것 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새로운 활력과 용기, 희망을 주는 해 답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16]

강조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절대 어떤 낙담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 시 대는 선을 배우고 전파할 많은 놀라 에 대해서 말하고 그분에 대한 우리 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입니 다. 주님에 대한 믿음을 배로 늘립시 다. "하느님은 더 강하십니다." 교황 님은 외치셨습니다. "왜 그러신지 아 십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주님, 유일 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보태서 말하자면, 현실이 때로 어둡고 악으 로 점철돼 있더라도 이는 바뀔 수 있 습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을 통 해 복음의 빛을 가져온다면 말입니 다. 어두운 밤에. . . 커다란 경기장에 서 한 사람이 불을 켜면 희미하게밖 에 볼 수 없지만, 다른 7만명의 관중 이 각자 불을 켜면 경기장 전체가 환 해 집니다. 우리의 삶이 함께 하나의 그리스도의 빛이 되도록 합시다. 함 께 우리는 복음의 빛을 이 모든 현실 에 가져갈 것입니다." [17] 교황님의 이 말씀이 메아리 치게 합 시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생활

운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 일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 에서, 체육활동에서—모든 순간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의 빛이 빛나 도록 매일 노력합시다. 이를 위한 힘 은 기도와 자주 보는 고해성사, 성체 성사에서 옵니다.

성 호세마리아 축일에 전 세계에서 많은 기도가, 특히 거룩한 미사 중에, 하늘로 올려졌습니다. 확신하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돈 알바로가 말하곤 했듯이, 이 기도들은 "왕복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기도들을 우리에게 돌려주시어 우리 자신과 친구들 안에서 결실을 맞도록 하십니다.

다가오는 주에 나는 7월말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열리는 세계청년대회 를 위하여 교황님을 수행하여 브라질 로 갑니다. 그 후에, 하느님이 허락하 시면, 짧게나마 칠레, 우루과이, 아르 헨티나를 방문해서 나의 자녀들 그리 고 성직자치단의 사도직으로부터 혜 택을 입은 사람들에게 교회는 우리 모두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교황 프란치스코께서, 전임 교황과 같이,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 세계 에 전파하기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 람에게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 말해주고 싶습니다. 교황님께서 6월 10일에 나에게 허락하셨던 개인 알현 에서 이를 말씀하셨습니다. 교황님과 그분의 지향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 기 바랍니다.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 로 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브라질과 내가 후에 방문할 다른 장소에서 풍성한 영적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해주시도 록 말입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은 베 드로의 후계자와 더 가깝게 우리 자 신을 일치시키도록 합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로서 그와 그의 교회와 영 호들을 위한 봉사와 일치하여 그를 따라가야 합니다.

7월 7일은 돈 알바로가 오푸스데이 입회 신청을 했던 기념일입니다. 나 는 성소에 대한 우리 모두의 충실함 을 그의 전구에 의탁합니다. 며칠 후 16일은 가르멜 산의 성모님 축일입니다. 나는 성모님께 어머니로서의 중 보를 통해 우리에게 성화를 위한 열 망과 사도적 열정을 채워주시기를 청합니다.

나는 사라고사에서 이 서간에 서명하고 있습니다. 대주교의 초청으로 이도시의 한 성당에 신자들을 위해서놓여질 성 호세마리아와 복자 요한바오로 2세의 상을 축복하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팜플로나로 갈 것입니다. 거기에서 며칠을 보낸 후 남아메리카로 떠날 것입니다. 나의 지향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나의 모든 사랑을 담아, 여러분을 축 복합니다.

2013년 7월 1일 사라고사에서

여러분의 아버지

- +하비에르
- [1] 『가톨릭 교회 교리서』, 766항.
- [2]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의 헌장 「인류의 빛」, 4항.
- [3] 로마 미사경본, 니케아-콘스탄티 노플 신경.
- [4] 성 호세마리아, 강론 「교회를 향한 충실」, 1972. 6. 4.
- [5] 성 호세마리아, 강론 「교회의 초 자연적 지향」, 1972. 5. 28.
- [6] 교황 프란치스코, 일반알현 연설, 2013. 5. 29.
- [7] 성 호세마리아, 강론 「교회의 초 자연적 지향」, 1972. 5. 28.
- [8] 성 호세마리아, 『길』, 517항.
- [9] 성 키프리아노, 『주님의 기도』23 (PL 4, 553)

- [<u>10]</u> 바오로 6세, 「하느님 백성의 신 조」, 1967. 6. 30., 22항
- [11] 위의 글, 23항.
- [12] 1티모 2:4.
- [13]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의 헌장 「인류의 빛」, 16항.
- [14] 성 호세마리아, 강론「교회의 초 자연적 지향」, 1972. 5. 28. 성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q. 62, a. 1 그리 고 q. 61, a. 2. 참조.
- [<u>15</u>]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의 헌장 「인류의 빛」, 17항.
- [16] 교황 프란치스코, 일반알현 연설, 2013. 6. 12.
- [17] 위의 글.

pdf | document generated automatically from https://opusdei.org/ko-kr/article/ danjangjugyoyi-7weol-samogseogan/ (2025-12-13)